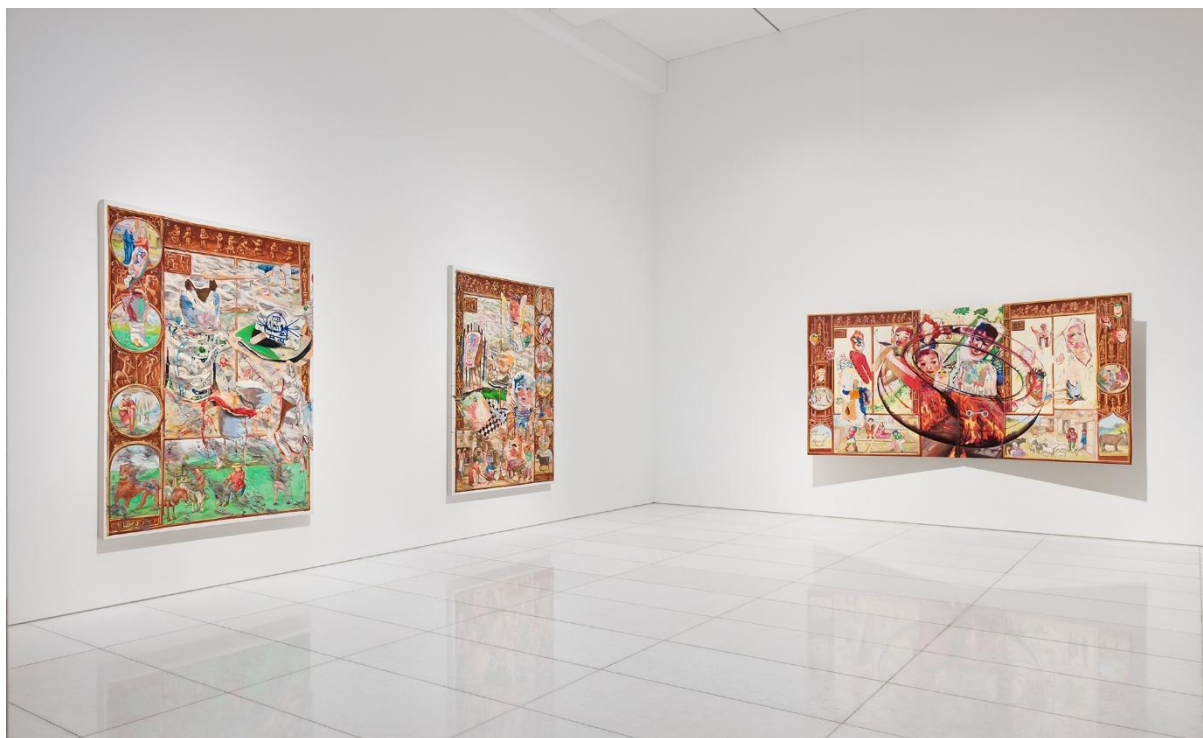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이지현, 《몽환서: 소란한 공백》
 LEE Jihyun, *Fantasma: Restless Silence*



이지현, 《몽환서: 소란한 공백》(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6) 전시전경.

참여작가 : 이지현(b. 1979)
 전시제목 : 《몽환서: 소란한 공백》
 전시일정 : 2026년 7월 1일(수) – 8월 15일(토)
 전시장소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종로구 율곡로 85) 1F, 3F, 4F
 전시작품 : 회화 22점

[문의] 박미란 팀장 / E. miran.park@arariogallery.com

자료목차	1. 전시개요	-----	2
	2. 전시구성 및 작품소개	-----	2-3
	3. 전시전경	-----	4
	4. 작가노트	-----	5
	5. 작가소개	-----	6
	6. 전시서문	-----	6-9
	7. 작가약력	-----	9-11

1. 전시개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2026년 7월 1일(수)부터 8월 15일(토)까지 **이지현**(b. 1979) 개인전 **《몽환서: 소란한 공백》**을 개최한다. 미국 뉴헤이븐에 기반하여 작업하는 이지현은 기억 속 장소의 이미지들을 회화의 언어로 재구성한다. 국내에서 4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개인전은 작가가 역사와 일상에서 발췌한 장면들을 중첩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구축한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조명한다. 신화적 기록에서부터 일상적 기억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삶을 관통하는 '기억'의 물질성을 회화의 언어로 번안한 결과물을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의 1층, 3층, 4층에서 다채롭게 선보인다. 이지현은 회화의 행위가 "기억의 기록이자, 망각에 대한 저항이며, 시간을 넘어 계속해서 생성되는 또 다른 미래의 기억을 향한 시도"라고 말한다. 전시명의 '몽환서'는 작가 자신의 기억과 상상, 믿음과 경험이 뒤섞인 가상의 필사본을 지칭한다. 회화의 화면 안팎에 자리한 공백은 이름 없는 감정과 정서들이 머무르는 장소인 동시에, 끝없이 새로운 관계성을 창출하는 소란의 공간이다.

2. 전시구성 및 작품소개

※고화질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제공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 LEE Jihyun.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작가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대표 이미지



〈스피놀라 시간_7월 사자자리〉
2023-2025
캔버스에 유채
213.3 x 152.4 cm

신화적 서사부터 개인의 일상까지 - 다양한 시공간의 '기억' 중첩한 화면

이번 전시에서 이지현은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의 3개 층 전시 공간을 거대한 책의 이미지에 투영한다. 각각의 층은 서로 다른 주제를 지닌 챕터에 비유된다. 이지현의 최근작에 영감을 준 것은 16세기 초 플랑드르에서 제작된 채색 필사본인 『스피놀라 시도서(Spinola Hours)』(c. 1510-1520)이다. 시도서(時禱書, Book of Hours)란 일정한 시간에 행하는 기도문과 시편, 달력, 세밀하고 호화로운 삽화를 포함한 책을 가리킨다. 그중에서도 중세 이탈리아 제노바 지역의 스피놀라 가문이 소유하였던 『스피놀라 시도서』는 책의 페이지를 각각 하나의 공간처럼 연출한 건축적 구성과 탁월한 장식적 요소로 잘 알려져 있다.

층고가 가장 높은 1층 공간은 '개인적 신화'에 관하여 다룬다. 해당 층에서 선보이는 〈스피놀라 시간〉(2020-2025) 연작은 개인의 경험이 무수한 시간 동안 반복되어 일종의 신화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경계_모래사장_1〉
2011
캔버스에 유채
225 x 183 cm (2 pcs.)



〈시간의 정원을 돌보는 이〉
2025
캔버스에 유채
152.4 x 182.9 cm



〈봉인된 정원〉
2026
캔버스에 유채
122 x 91.5 cm



〈구조와 잔상〉
2026
언프라임드 캔버스에 아크릴릭,
파스텔, 흑연
162.5 x 325 cm (2 p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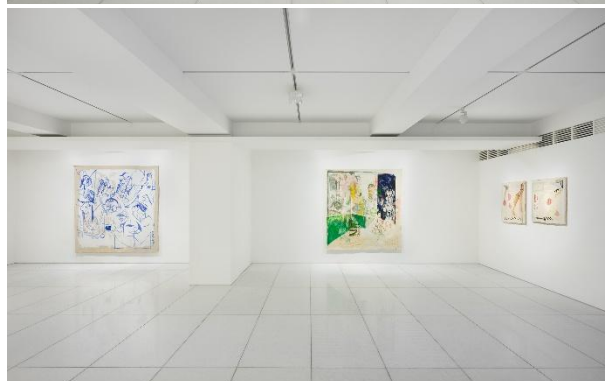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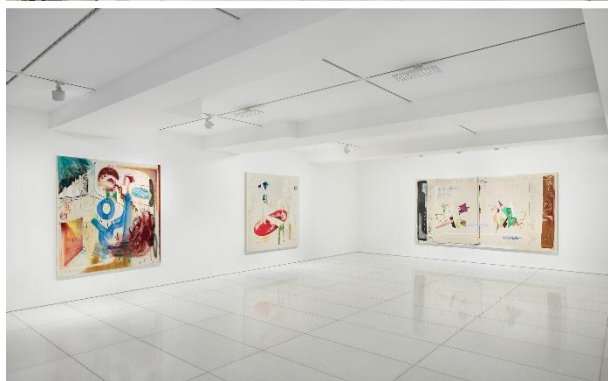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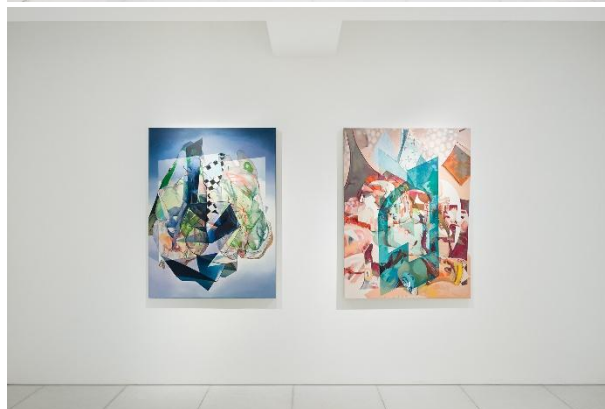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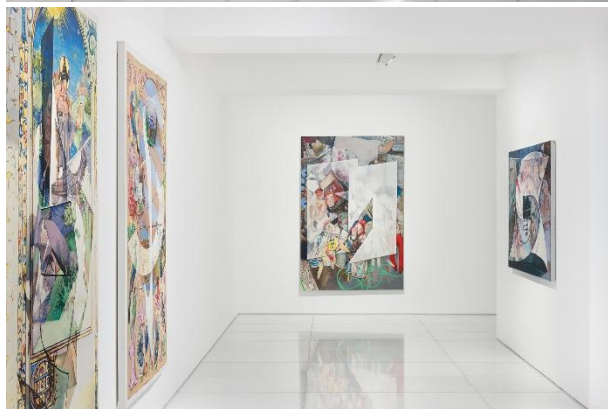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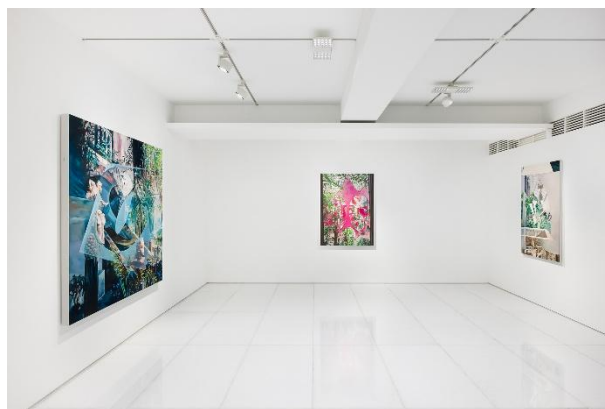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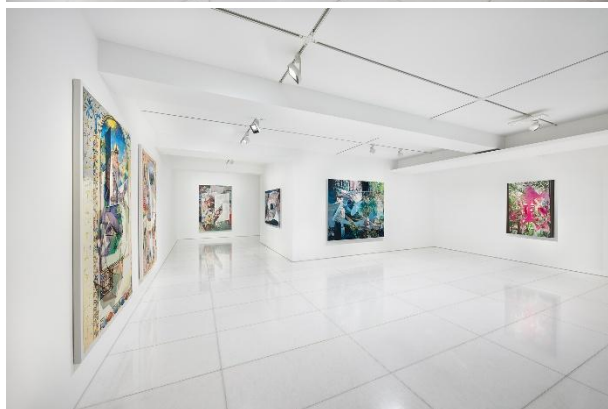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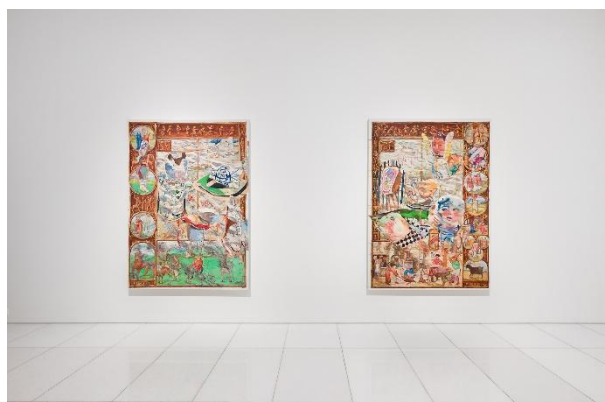
형상화한다. 해당 연작은 『스피놀라 시도서』에서 발췌한 이미지들과 작가 자신의 삶으로부터 온 기억들을 혼합하여 재해석한 결과물로서의 화면을 선보인다. 1층 전시 공간에 함께 선보인 구작 회화 〈경계_모래사장_1〉(2011)은 제작 시기의 측면에서 〈스피놀라 시간_7월 사자자리〉(2023-2025), 〈스피놀라 시간_12월 염소자리〉(2023-2025)와 12년 여의 시차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품들은 배경부의 모래사장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서로 간 공명을 이루게 된다. 동시에, 완전히 다른 시공간과 맥락 속에서 반복되는 모래사장의 기억은 저마다의 차이를 드러내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3층 전시 공간은 기억의 구조에 관하여 다루는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시간의 정원을 돌보는 이〉(2025)와 〈봉인된 정원〉(2026) 등에서 풍경 위에 덧씌워진 기하학적 구조물의 형상은 이지현의 회화에 지속적으로 등장해 온 요소이다. 팝업북의 형태로부터 차용한 해당 조형 요소는 모호한 대상으로 가득한 화면에 일종의 질서를 부여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달리 말하면 반투명한 막과 같은 형태는 의식의 층계 구조에 관한 상징으로, 잠재의식으로부터 끌어올린 이미지들을 의식적으로 구조화하는 회화적 요소로서 역할한다. 이지현은 이와 같은 조형 요소를 통하여 회화의 평면이 입체적인 공간감을 자극하도록 유도한다.

가장 위층인 4층 전시장에서는 신체적 행위의 흔적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지현은 밀칠을 하지 않은 캔버스 천에 드로잉하듯 작업한 연작을 통하여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표현의 과정을 강조한다. 거친 표면의 직물 위에 연필과 파스텔, 물감 등의 재료로 그린 이미지들은 작가의 가장 진솔하고 현재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캔버스 두 폭으로 이루어진 신작 〈구조와 잔상〉(2026)은 수작업으로 만든 인형과 뜨개질한 실 등의 오브제를 회화의 구성 요소로서 포용한다. 개인적이고 내밀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품은 이미지와 오브제들은 하나의 화면 위에서 유연한 균형을 이루어낸다.

3. 전시전경

※고화질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제공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이지현, 《몽환서: 소란한 공백》(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6) 전시전경.

4. 작가노트

시간을 건너는 이미지들
- 『몽환서: 소란한 공백』을 만들며

이지현

어릴 적, 꿈속에서 본 장면을 잊지 않기 위해 언젠가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랐지만, 같은 꿈을 다시 꾸지 않는 한 동일한 경험은 반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회화를 통해 실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감각이었다. 현실과 맞닿아 있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공간, 기억과 망각,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며 낯설게 펼쳐지는 장면들이다. 2010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나는 새로운 언어와 문화, 역사와 지형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물리적으로는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완전히 속한다고 느끼기보다 여전히 부유하는 감각을 종종 경험한다. 팬데믹을 지나며 그러한 감각은 더욱 선명해졌다. 어느 장소에 정착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상태, 익숙함과 낯섦이 공존하는 감정은 오랫동안 작업의 배경이 되어왔다.

이번 전시의 출발점은 개인적 기억이 시간이 지나며 하나의 신화처럼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 여기서 신화는 고대의 이야기나 보편적 상징체계를 의미하기보다, 반복적으로 되돌아오며 삶을 이해하게 만드는 개인적인 서사의 구조에 가깝다. 기억은 사실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과장되며, 서로 다른 시공간의 경험들과 뒤섞여 또 다른 이야기로 재구성된다. 나의 작업은 이러한 변형의 과정을 회화를 통해 기록하는 데서 출발한다. 나의 작업은 시간과 공간의 중첩을 기록하는 회화이다. 직접 경험한 장소와 기억, 일상의 사물과 풍경은 서로 뒤엉키고 변형되며 하나의 화면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회화는 씨실과 날실이 직조되듯 비워지고 채워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기억을 더듬고 잊고 다시 생성하는 인간의 인식 과정과 닮아 있다. 서로 다른 시공간이 한 화면 안에서 만나는 순간, 이미지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 또 다른 기억의 형태로 출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구작인 2011년의 <경계_모래사장_1>과 최근작 <스피놀라 시간_7월 사자자리>(2023-2025), <스피놀라 시간_12월 염소자리>(2023-2025)를 함께 선보인다. 세 작품에는 모래사장에 남겨진 발자국의 패턴이 반복되어 등장한다. 이 두 시리즈는 1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미지가 다른 맥락 속에서 변주되며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한 점을 통해 나는 오래 전의 작업이 현재의 작업 안에서 어떻게 되돌아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는 들뢰즈가 말한 '차이와 반복'처럼, 같은 것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관계가 생성되는 과정에 가깝다. 서로 다른 시간에 그려진 그림들을 한 공간에 놓고 바라보는 일은 나에게도 하나의 실험이다. 과거의 작업과 현재의 작업은 전시장에서 비로소 마주하며 또 다른 연결을 만들어낸다. 작가인 나 역시 관객의 위치에서, 시간을 넘어 이어지는 이미지들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한다.

5. 작가소개



이지현 프로필 이미지

© LEE Jihyun.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작가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이지현은 1979 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및 동 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미국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서울, 한국, 2026; 2022; 2008), 일리 현대미술센터(ECOCA, 뉴헤이븐, 미국, 2025), 두산갤러리 서울(서울, 한국, 2013), 두산갤러리 뉴욕(뉴욕, 미국, 2012), 갤러리 선컨템포러리(서울, 한국, 2006), 아라리오갤러리 베이징(베이징, 중국, 2006) 등의 기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알드리치 현대미술관(리지필드, 미국, 2026), 넥스트헤이븐(NXTHVN, 뉴헤이븐, 미국, 2024),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서울, 한국, 2024; 2021; 2011),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천안, 한국, 2020; 2010; 2006), 두산갤러리(서울, 한국, 2009), 서울시립미술관(서울, 한국, 2009) 등의 기관이 연 단체전에 참여했다. 2000 년 첫 단체전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스위스,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개최된 전시에 이름을 올렸다.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및 미술은행, 아라리오컬렉션 등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거주하며 활동한다.

6. 전시서문

회화의 물질적 시공간과 의식의 층계들

박미란 | 아라리오갤러리 팀장

빈 화면, 그 소란스러운 공백을 마주하는 작가의 첫 순간을 상상하여 본다. 고정된 상태에 머물지 않는 한시적 여백, 유예된 침묵을 대면하는 자의 시간을 가늠해 보는 일이다. 회화의 이유는 결국 불확실한 세계의 일각을 손에 잡히는 물성과 눈에 보이는 구조로 번역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에 있지 않을까. 이지현의 회화는 오래도록 작가의 내밀한 사적 기억을 외부 세계의 공적 담론과 연동시키는 매개체로서 기능해 왔다. 지극히 개인적인 서사로부터 비롯된 이미지들은 화면 위에 중첩됨에 따라 혼종적 군집으로 재구성된다. 형상들은 저마다 꿈속에서 목격한 풍경이나 모호한 기억의 상태를 지시한다. 각각의 요소는 사실적으로 묘사된 일부를 지니면서도, 초현실적인 구조 안에 재배치됨으로써 보통의 날들로부터 멀어진다.

회화의 물질적 시공간

이지현의 관념적 주제, 가령 꿈속의 장면이나 내밀한 기억들, 신화적 요소들은 회화라는 매체가 갖는 물질적 속성, 즉 재료의 물성 및 지지체의 면적과 같은 형식적 조건들과 결합됨으로써 하나의 회화적 이미지로 변안된다. 작업 과정 속에서 이미지는 그리는 자의 의식 세계를 경유하여 한 차례 번역되고, 신체적 움직임을 통한 재현의 단계에서 또 한 번 재구성된다. 이때 화면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매 순간 닥쳐오는 미래의 시공간이 조우하는 물질적 장으로서 기능한다. 이처럼 특수한 회화의 화면은 결국 최초의 관념적 서사를 보다 정동적인 차원의 경험으로 탈바꿈시킨다. 달리 말하면, 물질적 장으로서의 회화는 개별 요소와 세부 서사의 언어화에 앞서, 언제나 신체적 마주침의 즉각적인 순간에 정동적으로 경험된다.

이번 전시 《몽환서: 소란한 공백》에서 이지현은 세 개 층으로 나누어진 건축 구조에 의식의 층위를 투영한다. 그로써 전체의 전시 공간은 세 가지 다른 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책에 비유된다. 우선 가장 높은 층고를 지닌 지상층에서 작가는 신화와 역사의 광대한 시간 위에 자신의 서사를 중첩하여 바라보기를 시도한다. <스피놀라 시간>(2020-2025) 연작을 비롯한 최근작은 16 세기 초 플랑드르에서 제작된 채색 필사본인 『스피놀라 시도서 *Spinola Book of Hours*』(c. 1510-1520)를 접한 경험을 주요한 계기로 삼는다. 시도서(時禱書, Book of Hours)는 기도문과 시편, 달력, 세밀하고 호화로운 삽화를 포함한 책으로, 일정한 시간에 행하는 기도의 내용을 포함한다. 『스피놀라 시도서』는 중세 이탈리아 제노바 지역의 스피놀라 가문이 소유하였던 기도서로, 책의 페이지를 각각 하나의 공간처럼 연출하였으며 환상적인 테두리 장식과 건축적 구조의 활용, 다층적인 구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이지현은 낯선 시대와 문화의 유산인 『스피놀라 시도서』의 존재로부터 알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음을 고백한다. 이는 미국이라는 타지에서 경험한 불안과 고독의 감각을 인류의 보편적인 신앙적 실천에 투영하여 얻은 일종의 위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지현은 자신의 작업을 '시간과 공간의 중첩을 기록하는 회화'라고 정의한다.¹ 이미 시공간적 좌표를 갖고 존재하는 회화라는 사물 위에 중첩된 것은 곧 작가 자신의 기억과 경험, 행위와 직관의 복합물일 것이다. 작가는 개별 이미지가 시각 언어로서 지시하는 시공간적 정보뿐만 아니라, 재료의 점성과 붓질에 실는 힘, 응시의 기간과 직관적 선택, 환경적 조건과 우연한 효과가 촘촘히 교차하며 직조해낸 회화라는 사건 자체의 시공간적 중첩을 의식한다. 한편, 그는 때로 특정 이미지의 반복 사용을 통하여 시기적으로 동떨어진 복수의 화면을 공명시킨다. <경계_모래사장_1>(2011)에서 광범위한 면적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모래사장의 풍경이 <스피놀라 시간_7 월 사자자리>(2023-2025)와 <스피놀라 시간_12 월 염소자리>(2023-2025)의 액자식 구성 화면에 재차 나타나는 식이다. 여기에서 모래사장은 완전히 다른

¹ 이지현, 《몽환서: 소란한 공백》에 부친 작가노트, 2026.

시공간적 맥락의 화면들을 시각적으로 접붙이는 요소로서 작동한다.

가시화된 의식의 층계

중간 층에서 마주하는 작품들은 보다 개별적인 일상의 기억들을 소재 삼은 회화 연작이다. 복잡다단하게 뒤엉킨 형상들의 군집은 기존에 없던 낯선 구조를 이끌어낸다. 팝업 북의 구조를 차용한 기하학적 형상은 이지현의 화면에 지속적으로 등장해 온 조형 요소이다. <빛이 덮이는 시간_2>(2025)는 중세 채색 필사본의 장식적인 테두리와 아치형 창문의 형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성인의 모습과 신비한 자연 풍경을 일차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그 위에 기하학적 구조물의 형태가 반투명하게 중첩된 모습을 선보인다. <봉인된 정원>(2026)에서 화면 전면을 차지한 컷아웃 형태의 붉은 구조물은 초록 정원의 풍경을 잠식하듯 재편한다. 얇은 막과 같이 나타나는 그것들은 회화적 층위의 상징인 한편, 저마다의 화면 속에서 접힘과 절개, 단절 또는 관통의 구조로 변주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간의 정원을 돌보는 이>(2025)나 <접힌 무대>(2025)에서 반투명한 종이 구조물과 같이 형상화된 그것들은 혼란한 망상의 세계에 주관적 질서를 부여하는 구조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이때 화면 속 세계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막의 형상은 작가의 의식적 층계를 가시화한 결과물로 해석된다. 한편, 이와 같은 다층적 화면 구조는 회화라는 매개면 내외부의 입체적 공간의 존재를 암시한다. 낱장의 종지로 만든 입체적 팝업 구조가 그렇듯, 본질적으로 평면적인 회화가 다차원적인 공간감을 자극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지현의 이미지는 회화의 평면성과 그 환영이 내비치는 공간성, 그리고 회화라는 사물이 귀속된 전시 공간의 장소성을 다중적으로 횡단하는 경험 속에서 목격된다.

의식의 층계 구조는 이지현 특유의 작업 체계에서도 나타난다. <판타즈마>(2011-)라고 이름 붙인 소형 회화 연작은 그 명칭이 암시하듯 작가의 직관을 최대한 즉각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가장 섬세하고도 유령적인 이미지를 포착한 결과물이다. 달리 말하면, 이지현은 <판타즈마>를 통하여 최대한 자신의 잠재의식에 가까이 접근하기를 시도한다. 해당 연작은 작가의 회화적 세계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토대, 즉 가장 즉흥적인 동시에 가장 내밀한 낱것의 아이디어들을 투영해 보여준다. 전시에 선보인 <날아가는 오브제>(2023)에서와 같이, 해당 연작은 때로 천으로 꿰매어 만든 수공적 오브제를 포용함으로써 이미지의 촉감과 부피를 강조한다. <판타즈마>에 담긴 이미지의 파편들은 향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화면 위에서 보다 의식적으로 구조화된다.

가장 위층 전시장에서는 밀칠을 하지 않은 캔버스 생천 위에 드로잉하듯 작업한 연작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해당 연작을 통하여 이지현은 낱 것 그대로의 직물 표면으로부터 회화적 신체성의 표현 가능성을 탐구한다. 붓이 머금은 물감의 점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생천의 여백은 그로써 피부를 닮은 한편, 그리는 자의 신체적 행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캔버스 두 폭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신작인

〈구조와 잔상〉(2026) 또는 〈깊은 생각의 주름〉(2024) 등에서 작가는 이미지의 완결성보다 과정성을 드러내는 데 몰두한다. 화면은 작가의 선과 붓질이 지나간 궤적을 가감 없이 내보인다. 다양한 이미지와 텍스트는 중첩 및 연결되고, 분절 또는 결합되며 화면 위에 놓인 공백을 각자의 방식으로 메워 나간다.

이지현의 회화는 의식과 무의식, 꿈과 현실, 언어와 비언어의 층위를 교차적으로 횡단한다. 그 과정 속에서 회화라는 사건에 연루된 시간과 공간의 속성들은 저마다 물감에 용해되고, 층층이 중첩된다. 화면 위에 되새김된 기억과 기록, 신화와 역사의 파편들은 작가의 주관적인 질서 아래 완전히 새롭게 재배치된다. 그렇게 구축된 화면은 모든 마주침의 사건 속에서 즉각적인 정동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신체적으로 감각되고, 의식적으로 포착됨에 따라 마주한 존재들의 정서를 변화시킨다. 촉각적인 신체에 마주 닿는 환영으로서의 회화는 낯선 존재 사이 비언어적 공명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현실의 장소 위에 내려 둔 닳아 아닐까. 무수한 환상으로 소란한 이지현의 회화는, 가장 내밀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마음의 공백에 호소한다.

7. 작가약력

이지현

1979년 서울 출생

미국 뉴헤이븐에 거주하며 작업

학력

- 2001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 2003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석사
- 2018 미국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순수미술 석사

개인전

- 2026 몽환서: 소란한 공백,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 2025 틈, 일리 현대미술센터(ECOCA), 뉴헤이븐, 미국
- 2022 레드썬,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언더그라운드 인 스페이스), 서울, 한국
- 2013 경계, 두산갤러리, 서울, 한국
- 2012 경계, 두산갤러리, 뉴욕, 미국
- 2008 반사면,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 2006 매시업, 갤러리 선컨템포러리, 서울, 한국
- 이지현 개인전, 아라리오갤러리 베이징, 베이징, 중국
- 2005 외출, 두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 이지현 개인전, 갤러리현대 윈도우갤러리, 서울, 한국
- 2004 일상 공간의 혼재, 아트스페이스 휴, 서울, 한국
- 2003 제1회 개인전, 갤러리 아티누스,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 2026 알드리치 데시니얼: 나는 나를 둘러싼 것이다, 알드리치 현대미술관, 리지필드, 미국
- 2024 꿈꾸는 것을 누릴 자격, 넥스트헤이븐(NXTHVN), 뉴헤이븐, 미국
스물, iiiiotae_프로젝트 스페이스, 뉴헤이븐, 미국
착륙지점,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 2023 블록과 다리: 뉴헤이븐의 세계 짓기, 크리에이티브 아트 워크숍, 뉴헤이븐, 미국
불확정의 역사들, 뉴얼라이언스 재단 아트갤러리, 뉴헤이븐, 미국
아트 드롭스: 장소의 감각, 헤이븐리(Havenly), 뉴헤이븐, 미국
- 2021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파프): 파이널 컷,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한국
- 2020 모든 것이 달라진 지금, 스테이 홈 갤러리, 패리스, 테네시, 미국
댄싱퀸,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 2018 전술, 작업, 용어, 형식, 진술, 371 브로드웨이, 뉴욕, 미국
지상 최대의 쇼, 슬라이드쇼 갤러리, 뉴욕, 미국
- 2017 예술, 편지, 집: 작가의 필사본, CAA 메인 갤러리, 항저우, 중국
AAAAAAAAAAAAAH!, 스페이스 히터 갤러리, 뉴욕, 미국
- 2016 나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워터폴 갤러리, 뉴욕, 미국
- 2011 아티스트 워드 아라리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파라노이드 씬, 인터알리아 아트컴퍼니, 서울
- 2010 아티스트 워드 아라리오,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 2009 기록문화특별전: 전통과 현재, 서울대학교미술관 및 규장각, 서울, 한국
더블 판타지: 한국 현대미술전, 마루가메 겐이치로 이노쿠마 현대미술관, 가가와, 일본
표면 위의 공간, 두산갤러리, 서울, 한국
- 2006 또 다른 세계,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사물시선(事物視線),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2005 비전과 전망,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마이 프라이빗 갤러리, 가나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젊은 작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제3회 프리뷰, 대안공간 팀프리뷰, 서울, 한국
일인칭의 공간, 선화랑, 서울, 한국
- 2004 윤정의 향기,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한국

- 프로젝트 139: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 2003 콜렉티드 페인팅, 대안공간루프, 서울, 한국
- 제9회 신진작가발언전, 관훈갤러리, 서울, 한국
- 명함전, 대안공간루프, 서울, 한국
- 2002 날아가는 돼지문화열차, 도시철도5호선, 서울, 한국
- 냉장고를 열다, 이화여자대학교 갤러리, 서울, 한국
- 제5회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서울, 한국
- 2001 이지현·임영주, 갤러리 헬로아트, 서울, 한국
- 제4회 인디페스티벌, 클럽 수퍼 플라이, 서울, 한국
- 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씨알이론: 가면, 동덕아트센터, 서울, 한국
- 2000 제2회 사랑의 공갈단: 작업중, 대안공간 풀, 서울, 한국
- 공장미술제 2000: 눈먼 사랑, 샘표공장, 서울, 한국
- 제3회 독립예술제: 비루스, 예총회관, 서울, 한국
- 제1회 사랑의 공갈단: 작업중, 한서갤러리, 서울, 한국

레지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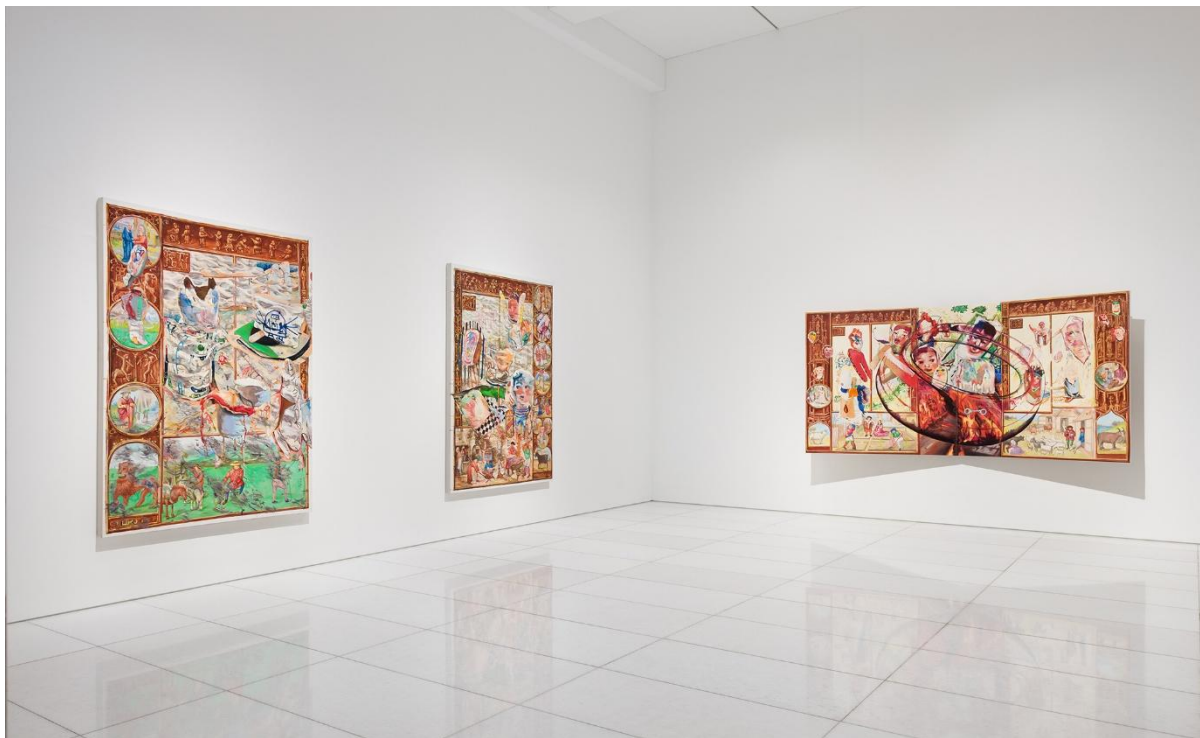
- 2012 두산레지던시, 뉴욕, 미국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한국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한국
- 벽산엔지니어링 미술관, 한국
- 아라리오컬렉션, 한국

ARARIO GALLERY SEOUL

LEE Jihyun

Fantasma: Restless SilenceInstallation view of LEE Jihyun, *Fantasma: Restless Silence*, 2026.

Artist : LEE Jihyun (b. 1979)
Title : *Fantasma: Restless Silence*
Dates : 1 July – 15 August 2026
Venue : ARARIO GALLERY SEOUL (85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1F, 3F, 4F
Artworks : 22 Paintings in total

[Inquiry]

Miran PARK, Deputy Director | E. miran.park@arariogallery.com

Table of Content	1. Exhibition Overview	-----	13
	2. Exhibition Layout and Artworks	-----	13-14
	3. Installation view	-----	15
	4. Artist Statement	-----	16
	5. Artist Introduction	-----	17
	6. Curatorial Essay	-----	17-19
	7. Artist CV	-----	20-22

1. Exhibition Overview

ARARIO GALLERY SEOUL is pleased to present ***Fantasma: Restless Silence***, a solo exhibition by **LEE Jihyun** (b. 1979), on view from 1 July to 15 August 2026. Based in New Haven, Connecticut, LEE reconstructs images of remembered places through the language of painting. Marking her first solo exhibition in Korea in four years, the exhibition highlights the distinctive painterly world she has developed through layering and reinterpreting scenes drawn from both history and everyday life. Across the first, third, and fourth floors of ARARIO GALLERY SEOUL, the exhibition presents works that translate the materiality of memory—spanning mythic records to ordinary recollections—into painterly form. LEE describes the act of painting as "a record of memory, a form of resistance against forgetting, and an attempt to create yet another memory that continues to emerge beyond time." The title *Fantasma* refers to an imagined manuscript in which the artist's memories, imagination, beliefs, and lived experiences intertwine. The empty spaces that exist both within and beyond the painted surface function as sites where unnamed emotional states linger, while simultaneously becoming restless spaces where new relationships continually emerge.

2. Exhibition Layout and Artworks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opyright credit: © LEE Jihyun.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Spinola Hours_July: Leo

2023-2025

Oil on canvas

213.3 x 152.4 cm

From Mythic Narratives to Everyday Life: Layering Memory Across Time and Space

In this exhibition, LEE conceives the three floors of ARARIO GALLERY SEOUL as a monumental book, with each floor unfolding as a distinct chapter. Much of her recent work takes its point of departure from the *Spinola Book of Hours* (c. 1510–1520), an illuminated Flemish manuscript produced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A book of hours is a devotional manuscript containing prayers, psalms, a calendar, and richly illuminated miniatures intended for prayer at designated hours of the day. Once owned by the Spinola family of Genoa, the *Spinola Book of Hours* is renowned for its architectural organization, in which each page functions as a self-contained spatial composition, as well as for its extraordinary decorative program.

The first floor, distinguished by its soaring ceiling, explores the idea of "personal myth." The *Spinola Hours* series (2020–2025) visualizes the process through which personal experiences, repeated over time, gradually become a kind



Threshold_Sandy Beach_1

2011

Oil on canvas

225 x 183 cm (2 pcs.)



The Gardener of Time

2025

Oil on canvas

152.4 x 182.9 cm



Sealed Garden

2026

Oil on canvas

122 x 91.5 cm



Structure and Afterimage

2026

Watercolor on muslin, felt, and wool
yarn, graphite, pastel, and acrylic on
unprimed canvas

162.5 x 325 cm (2 pcs.)

of personal mythology. These paintings bring together imagery from the Spinola Book of Hours with memories from the artist's own life, creating deeply personal reinterpretations of historical visual references. Also presented on the first floor, *Threshold_Sandy Beach_1* (2011) predates *Spinola Hours_July: Leo* (2023–2025) and *Spinola Hours_December: Capricorn* (2023–2025) by more than a decade. Yet the recurring image of the sandy beach creates resonances across these works. Reappearing in entirely different temporal and spatial contexts, the remembered image of the beach reveals new meanings while maintaining subtle differences in each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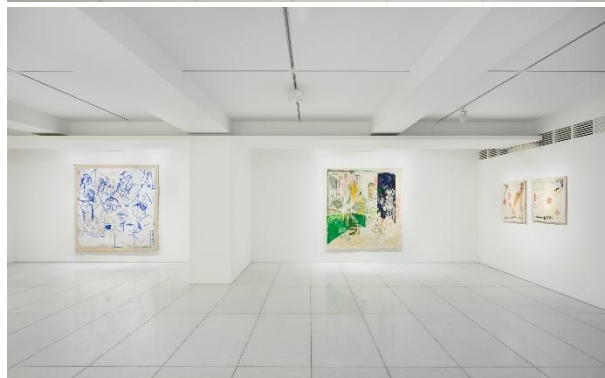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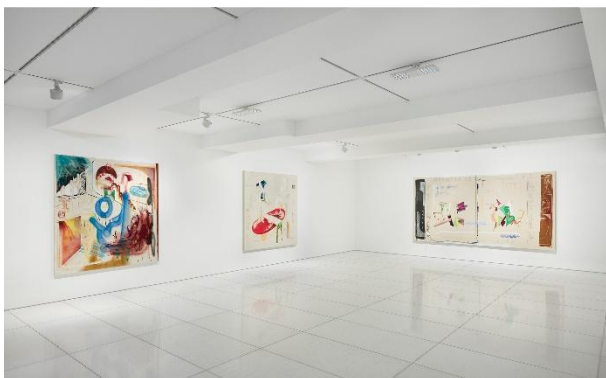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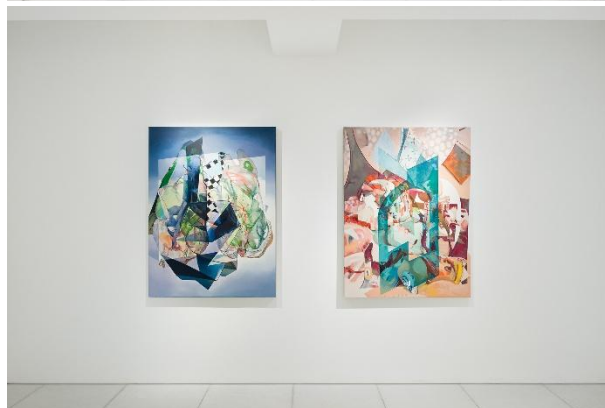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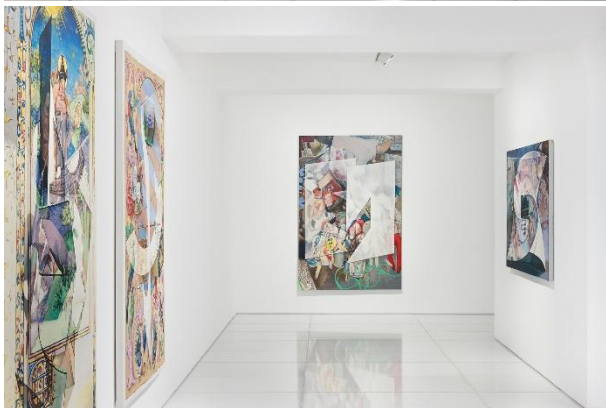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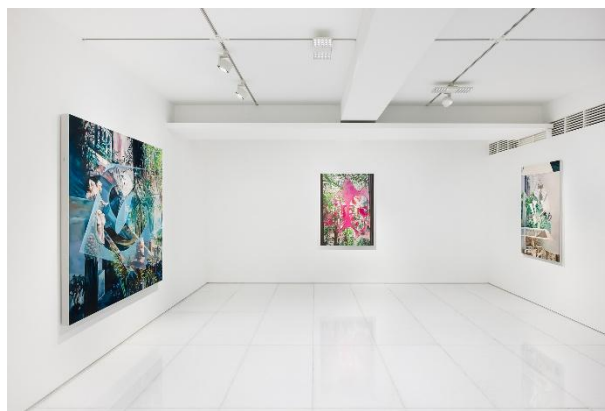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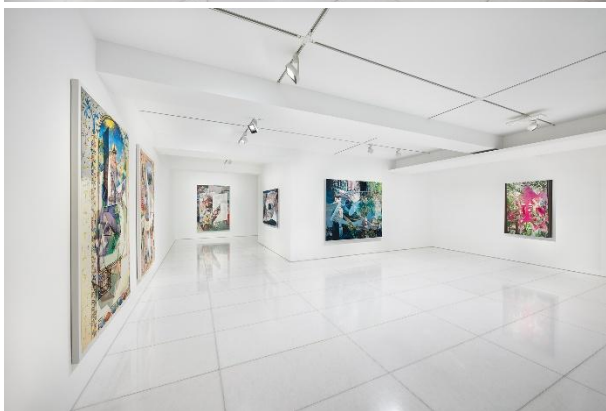
The third floor focuses on works that explore the structures of memory. Geometric forms layered over landscapes in paintings such as *The Gardener of Time* (2025) and *Sealed Garden* (2026) are recurring elements throughout LEE's practice. Borrowed from the structure of pop-up books, these forms introduce a sense of order into compositions populated by ambiguous and dreamlike imagery. Like translucent membranes, they symbolize the layered structure of consciousness, organizing images drawn from the subconscious into deliberate pictorial compositions. Through these devices, LEE encourages the fundamentally flat surface of painting to evoke a multidimensional sense of space.

The fourth floor presents works that foreground the traces of bodily gesture. Executed almost as drawings on unprimed canvas, these paintings emphasize intuitive and spontaneous mark-making. Images rendered in pencil, pastel, and paint on the coarse textile surface reveal the artist's most immediate and authentic presence. The recent work *Structure and Afterimage* (2026), composed of two adjoining canvases, incorporates handmade dolls, knitted threads, and other crafted objects as integral elements of the pictorial composition. Together, these images and objects, rooted in intimate moments of everyday life, create a fluid and delicate balance within a single pictorial space.

3. Installation view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redit: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Installation view of LEE Jihyun, *Fantasma: Restless Silence*, 2026.

4. Artist Statement

Images in Passage

– On Creating *Fantasma: Restless Silence*

LEE Jihyun

When I was a child, I often imagined writing down the dreams I had seen, pairing words with drawings so I would never lose them. I wanted to believe that, years later, I could return to those places exactly as I had first encountered them. Eventually I realized that this was impossible. Unless the same dream returned, the experience itself could never be repeated. From that point on, what I wanted to pursue through painting was precisely that sensation. I became interested in spaces that touch reality yet could never exist within it places where memory and forgetting, past and present, overlap until they become difficult to distinguish. Since moving to the United States in 2010, I have lived within a different language, culture, history, and landscape. Although I have made a life there, I often feel suspended between places rather than rooted in one. The pandemic only made that feeling even more distinct. To be settled in one place while never feeling that I fully belong there, where familiarity and estrangement coexist, has quietly become the emotional landscape from which my paintings emerge.

This exhibition begins with the idea that personal memory slowly transforms into something like mythology. By mythology, I do not mean ancient stories or universal symbols. I am thinking instead of the private narratives that return again and again, gradually shaping the way we understand our own lives. Memory never preserves the past intact. Some fragments disappear while others grow more vivid. They become entangled with experiences from different moments and different places, eventually forming entirely new narratives. My work begins by tracing this process of transformation through painting. My paintings are records of overlapping time and space, where remembered places, everyday objects, landscapes, and lived experiences intersect to create new relationships within a single pictorial field. Painting unfolds much like the weaving of warp and weft. The surface is repeatedly emptied and filled, echoing the human process of searching through memory, forgetting, and continually generating new perceptions. When different times and places converge within a single painting, the image no longer functions merely as a representation of experience; it emerges instead as another form of memory.

This exhibition brings together *Threshold_Sandy Beach_1* (2011) with the more recent *Spinola Hours_July: Leo* (2023–2025) and *Spinola Hours_December: Capricorn* (2023–2025). Across these works, the pattern of footprints left in the sand appears repeatedly. Although more than a decade separates the two bodies of work, the same image returns in different contexts, taking on new meanings each time. Placing these paintings together allowed me to see how an earlier work reappears within my present practice. It recalls what Gilles Deleuze described as "difference and repetition": repetition is never the return of the same, but the condition through which new meanings and new relationships emerge. Bringing paintings made years apart into the same space is itself an experiment for me. Only in the exhibition do these earlier and later works finally encounter one another, forming new connections within the space itself. In that sense, I too become a viewer, following the images as they continue their passage across time.

5. Artist Introduction



LEE Jihyun at her studio.

© LEE Jihyun.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LEE Jihyun was born in 1979, Seoul, Korea. She received her BFA and MFA from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Seoul, and earned an MFA from the School of Visual Arts in New York. The artist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6; 2022; 2008), ECOCA (Ely Center of Contemporary Art) (New Haven, CT, US, 2025), Doosan Gallery Seoul (Seoul, Korea, 2013), Doosan Gallery New York (New York, NY, US, 2012), Gallery Sun Contemporary (Seoul, Korea, 2006), ARARIO GALLERY BEIJING (Beijing, China, 2006). Her work also been featured in group exhibitions at Aldrich Contemporary Art Museum (Ridgefield, CT, US, 2026), NXTHVN (New Haven, CT, US, 2024),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4; 2021; 2011),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2020; 2010; 2006), DOOSAN Gallery (Seoul, Korea, 2009),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6; 2005), among others. Since participating in her first group exhibition in 2000, she has exhibited internationally in the United States, Switzerland, Japan, and elsewhere. Her works are included in the collections of the Government Art Bank and Art Bank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the ARARIO Collection. She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New Haven, Connecticut, US.

6. Curatorial Essay

Painting as Material Space-Time and the Strata of Consciousness

PARK Miran | Deputy Director, ARARIO GALLERY

Imagine the artist's first encounter with a blank canvas—that restless emptiness before a single mark has been made. It is the moment one confronts a provisional void, a suspended silence that refuses to settle. Perhaps painting ultimately arises from the desire to understand an uncertain world by translating fragments of it into tangible materiality and visible structure. For many years, LEE Jihyun's paintings have functioned as a medium that connects the artist's intimate memories with the public discourse of the external world. Images drawn from deeply personal narratives accumulate across the pictorial surface, forming hybrid assemblages. Each motif alludes to dreamscapes or ambiguous states of memory. While retaining elements of realistic depiction, these forms are displaced within surreal structures, distancing themselves from the familiarity of ordinary life.

Painting as Material Space-Time

LEE's conceptual subjects—dream imagery, private memories, and mythological elements—take pictorial form through their encounter with the material properties of painting: the physical qualities of its medium and the formal conditions of its support, such as the dimensions of the canvas. In the course of painting, images first pass through the artist's consciousness, undergoing one translation before being reconstructed through the bodily act of representation. The pictorial surface becomes a material field where past, present, and future continually converge. In this way, the singular space of painting transforms an initial conceptual narrative into an affective experience. In other words, before individual elements or narrative details can be articulated in language, painting as a material field is always experienced in the immediate moment of bodily encounter.

In *Fantasma: Restless Silence*, LEE projects different layers of consciousness onto the exhibition's three-story architectural structure, transforming the exhibition into a book unfolding through three distinct chapters. On the ground floor, with its exceptionally high ceiling, the artist attempts to superimpose her own narrative upon the vast temporal horizon of myth and history. Recent works, including the *Spinola Hours* series (2020–2025), were largely inspired by her encounter with the *Spinola Book of Hours* (c. 1510–1520), an illuminated Flemish manuscript produced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A book of hours is a devotional manuscript containing prayers, psalms, a calendar, and richly illuminated miniatures intended for prayer at designated hours of the day. The *Spinola Book of Hours*, once owned by the Spinola family of Genoa, Italy, is distinguished by its treatment of each page as an independent spatial composition, its fantastical borders,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multilayered organization. LEE recalls experiencing an inexplicable sense of familiarity upon encountering this relic from a distant culture and era—a consolation, perhaps, born from projecting the anxiety and solitude she experienced as a foreigner in the United States onto the universal human devotional practice.

LEE defines her practice as "painting that records the overlapping of time and space." Painting already exists as an object with its own spatiotemporal coordinates; upon it, the artist layers her memories, experiences, gestures, and intuitions. She is attentive not only to the spatiotemporal information conveyed by individual images as visual language, but also to the dense interplay of the viscosity of paint, the force of each brushstroke, the duration of sustained looking, intuitive decision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accidental effects, all of which weave together the event of painting itself. At times, she also creates resonances between works produced years apart through the repetition of specific motifs. For example, the expansive sandy beach that forms the background of *Threshold_Sandy Beach_1* (2011) reappears within the framed compositions of *Spinola Hours_July: Leo* (2023–2025) and *Spinola Hours_December: Capricorn* (2023–2025). Here, the beach functions as a visual hinge, connecting pictorial spaces belonging to entirely different temporal and spatial contexts.

Visualized Strata of Consciousness

The works presented on the middle floor revolve around more personal memories drawn from everyday life. Their densely entangled clusters of forms generate unfamiliar compositional structures. Geometric motifs inspired by the mechanics of pop-up books have long been a recurring formal element in LEE's paintings. *Vesper_Folded Hours_2* (2025) depicts the ornamental borders and arched windows of medieval illuminated manuscripts, along with saints and

mysterious landscapes, while overlaying these images with translucent geometric constructions. In *Sealed Garden* (2026), a cutout-like red structure dominates the composition, reconfiguring the green landscape as though engulfing it. These membrane-like forms symbolize pictorial layers while simultaneously assuming the roles of folds, incisions, ruptures, or passages within each painting.

In works such as *The Gardener of Time* (2025) and *Folded Tableaux* (2025), translucent paper-like structures function as compositional devices that impose subjective order upon a world of chaotic fantasy. The membranous forms that reorganize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painted world may thus be understood as visualizations of the artist's strata of consciousness. At the same time, this multilayered pictorial construction suggests the existence of a three-dimensional space both within and beyond the surface of painting. Just as a pop-up structure fashioned from sheets of paper transforms a flat page into spatial experience, LEE's paintings encourage fundamentally two-dimensional surfaces to evoke multidimensional spatiality. Consequently, her images are encountered through experiences that traverse the flatness of painting, the illusionistic space it projects, and the sense of place of the exhibition space to which the painting belongs.

This layered structure of consciousness also manifests itself in LEE's distinctive working process. The ongoing series of small paintings entitled *Fantasma* (2011–) seeks, as its title suggests, to capture the most delicate and spectral images by recording the artist's intuition as immediately as possible—approaching her subconscious as directly as painting itself permits. The series reveals the fundamental ground of her painterly world: her most intimate, spontaneous, and unprocessed ideas. As seen in *Flying Object* (2023), works in the series occasionally incorporate hand-sewn textile objects, emphasizing the tactile and volumetric qualities of the image. Fragments of imagery first explored in *Fantasma* later become more consciously structured within larger-scale compositions.

The uppermost gallery is devoted to works executed almost as drawings on unprimed canvas. Through this series, LEE explores the expressive potential of the body's presence in painting emerging directly from the raw textile surface. The untouched canvas responds immediately to the viscosity of paint carried by the brush, becoming at once skin-like and receptive—a surface that faithfully records the traces of the artist's bodily gestures. In recent diptychs such as *Structure and Afterimage* (2026) and *Creases of Contemplation* (2024), the artist is less concerned with pictorial completion than with revealing process. The surface openly displays the trajectories of lines and brushstrokes. Images and texts overlap and connect, separate and recombine, each filling the blank spaces of the canvas in its own way.

LEE's paintings traverse the strata of consciousness and the unconscious, dreams and reality, language and the nonverbal. Throughout this process, the temporal and spatial dimensions embedded in the event of painting dissolve into pigment and accumulate in successive layers. Memories and records—fragments of myth and history reiterated upon the pictorial surface—are entirely rearranged according to the artist's subjective order. The resulting image generates an immediate affective response in every encounter. As it is sensed bodily and apprehended consciously, it transforms the emotional state of those who stand before it. As an illusion that is experienced through the body, painting ultimately becomes an anchor cast into the world in the hope of fostering a nonverbal resonance between unfamiliar beings. Restless with countless fantasies, LEE's paintings appeal to the most intimate—and therefore the most universal—voids within the human mind.

7. Artist CV

LEE Jihyun

Born in 1979, Seoul, Korea

Currently works and lives in New Haven, CT, US

Educations

- | | |
|------|---|
| 2001 | BFA Paint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 2003 | MFA Paint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Korea |
| 2018 | MFA Fine Arts, School of Visual Arts, New York, NY, US |

Solo Exhibitions

- | | |
|------|---|
| 2026 | <i>Fantasma: Restless Silence</i> ,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 2025 | <i>Interstice</i> , ECOCA (Ely Center of Contemporary Art), New Haven, CT, US |
| 2022 | <i>Red Scene</i> , ARARIO GALLERY SEOUL (Underground in SPACE), Seoul, Korea |
| 2013 | <i>Threshold</i> , Doosan Gallery, Seoul, Korea |
| 2012 | <i>Threshold</i> , Doosan Gallery, New York, NY, US |
| 2008 | <i>Reflective Surface</i> ,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 2006 | <i>Mash Up</i> , Gallery Sun Contemporary, Seoul, Korea |
| | <i>Jihyun Lee</i> , ARARIO GALLERY BEIJING, Beijing, China |
| 2005 | <i>Going Out</i> , doART Gallery, Seoul, Korea |
| | <i>Jihyun Lee</i> , Window Gallery, Gallery Hyundai, Seoul, Korea |
| 2004 | <i>Confusion of Daily Space</i> , Art space Hue, Seoul, Korea |
| 2003 | <i>The 1st Solo Show</i> , Gallery Artinus, Seoul, Korea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 | |
|------|--|
| 2026 | <i>The Aldrich Decennial: I Am What Is Around Me</i> , Aldrich Contemporary Art Museum, Ridgefield, CT, US |
| 2024 | <i>Deserve What You Dream</i> , NXTHVN, New Haven, CT, US |
| | <i>Small, iiiiotae</i> _Project Space, New Haven, CT, US |
| | <i>Landing Point</i> ,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 2023 | <i>Blocks and Bridges: Worldbuilding in New Haven</i> , Creative Arts Workshop, New Haven, CT, US |
| | <i>Indefinite Histories</i> , NewAlliance Foundation Art Gallery, New Haven, CT, US |
| | <i>Art Drops: A Sense of Place</i> , Havenly, New Haven, CT, US |
| 2021 | <i>Post Archive Faction (PAF): Final Cut</i> ,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 2020 | <i>Everything Is Different Now</i> , Stay Home Gallery, Paris, TN, US |
| | <i>Dancing Queen</i> ,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

- 2018 *Tactics, Works, Terms, Forms, Statements*, 371 Broadway, New York, NY, US
The Greatest Show on Earth, Slideshow Gallery, Brooklyn, NY, US
- 2017 *Art. Letter. Home: Artist Manuscript*, Main Gallery at CAA, Hangzhou, China
AAAAAAAAAAAAAH!, Space Heater Gallery, Brooklyn, NY, US
- 2016 *The Need for My Care*, Waterfall Gallery, New York, NY, US
- 2011 *Artists with ARARIO*,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Paranoid Scene, Interalia Art Company, Seoul, Korea
- 2010 *Artists with ARARIO*,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 2009 *Document Culture: Tradition and Pres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Korea
Double Fantasy-Korean Contemporary Art, Marugame Genichiro-Inokuma Museum, Kagawa, Japan
Space on the Surface, Doosan Gallery, Seoul, Korea
- 2006 *Another Worlds*,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The Way of Viewing Objects,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05 *Vision & Perspective*,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My Private Gallery, Gana Art Gallery, Seoul, Korea
Seoul Exhibition of Young Artists,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The 3rd Preview, Alternative Space Team Preview, Seoul, Korea
The Space of 'SUM', Gallery Sun, Seoul, Korea
- 2004 *Scent of Woon Ju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Museum, Seoul, Korea
Project 139: The Garden of Forking Paths, Ilmin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03 *Collected Painting*, Alternative Space_Loop, Seoul, Korea
The 9th Contemporary Expressions of Korean Young Artist, Gwanhoon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Name Card,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Korea
- 2002 *Happy Flying Piggie Metro*, City Metro_Line 5, Seoul, Korea
Open a Refrigerator,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The 5th Seoul Fringe Festival, Seoul, Korea
- 2001 *Lee Jihyun & Lim Youngjoo*, Gallery HelloArt, Seoul, Korea
The 4th Indie Festival, Club Super Fly, Seoul, Korea
The Water, Seoul Museum of Modern Arts, Seoul, Korea
A China Robot Mask, Dong-duk Art Center, Seoul, Korea
- 2000 *The 2nd Working in the Gallery*,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Korea
L'Amour Aveugle, Sempio Factory, Seoul, Korea
The 3rd Indie Festival: Virus, Seoul, Korea
The 1st Working in the Gallery, Hanseo Gallery, Seoul, Korea

Residencies

- 2012 Doosan Artist Residency, New York, NY, US

Collections

Government Art Bank,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Korea

Art Bank,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Korea

Byucksan Engineering, Korea

ARARIO Collection, Korea